

## 대전발전연구원-한남대 다문화교육원 공동세미나

### 결혼이주여성의 우수인적자원 지역사회 활용방안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과 한남대 다문화교육원(원장 강정희)은 18일(목) 10시 하나은행 오류동사옥 10층 대강당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우수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늘날 다문화가정은 날로 증가하지만 다문화가정의 관련 정책은 적절하게 뒷받침 되지 못하고, 결혼하면서 이주하여 온 우수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우수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배경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

강정희 한남대 다문화교육원장 인사말에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의 많은 수가 고학력자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여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인 고유의 특성과 능력이 존중되고 활용되며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인실 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우수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다문화 가정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중언어강사 제도는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 글로벌 인재육성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장기적 교육 실시, 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의 다양화 추구, 교육과 취업의 연계,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및 재교육 기회확대, 한국인들의 의식 개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기중 한남대 한국어학당 교수의 진행으로 주혜진 대발연 여성가족정책센터장, 윤희일 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 유숙희 대전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조원권(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온미 한남대 다문화교육원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이 참석하였다

온미 한남대 다문화교육원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은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우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지역과 국가발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이러한 우수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평등한 고용기회 부여, 이중언어강사 정책 보완 및 강화, 외국인 대상의 전용 상담창구나 상담기관의 상담 및 통역역할 부여,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게만 국한된 다문화교육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j



**반짝이는 대전발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지속가능성도시 1위 유지를 위한 대전발전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응모기간 2013. 8. 1 ~ 2013. 11. 30

제안분야 및 내용

- 경제, 환경, 사회, 명성 분야

**선정 및 상금**

- 최우수상(분야별 각1명)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우수상(분야별 각1명)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등록방법**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제안합니다 코너 활용 (www.djdi.re.kr)

## 행복한 대전만들기 e-포럼 출범

### 창의적인 전문가 정책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책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대전발전연구원은 민선1~5기와 6기 이후를 관통하는 도시경쟁 우위 확보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만들기 e-포럼」을 구성, 24일 2시 연구원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대발연은 세계일류 도시를 향한 대전의 도시성(소위 대전학)에 대한 객관적 지표 개발 및 토론, 그리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 정책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대전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대전시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정책지문단 운영과 독립된 실무적 정책개발 그룹으로서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이 포럼이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비스 디자인 등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기 원장은 “시정 이슈에 대해 그때그때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대면회의보다는 사이버상 회의(이메일 등)를 통한 상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책 개발을 위한 상시 e-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j



## “ 대전발전연구원-대전소비자시민모임 공동세미나 ”

‘대전시민 식생활에서의 나트륨 저감방안’ 모색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대전소비자시민모임과 11일(목) 10시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민 식생활에서의 나트륨 저감방안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시에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트륨 저감을 위한 구체적 행동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의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처음 발제를 맡은 박종태 충남대 교수는 나트륨 저감방안에 대해 ‘소금섭취 줄이기’를 강조하며,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점점 증가하는데 주요원인으로 우리 음식문화에서는 국, 찌개 등과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요즘 식생활의 변화로 외식증가, 포장제품, 배달 음식등의 섭취 증가를 꼽았다. 이어 박 교수는 “앞으로 한국음식문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변화, 소금대체제 연구 개발 및 사용 확산, 가공식품 및 외식 산업의 저염식품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오석태 교수는 ‘식생활에서 MSG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주제를 통해 “오늘날 MSG와 그 밖에 화학조미료에 대해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조미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더욱 높여야 된다”고 강조하며, “외식업계에서 화학 조미료를 배제하고 천연조미료, 재료를 사용하여 업주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식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천연조미료가 연구되어야 하고, 업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들이 개발되어져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육홍선(충남대 식품영양학과)교수의 진행으로 김정현(배재대 가정교육과)교수, 김현균(대전시 식품안전과장), 이계호(충남대 화학과)교수, 이성희(디트뉴스푸드 칼럼리스트)가 참석해 열린 토론을 나눴다. j



## “ 대전지역 여성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2013년 7월 23일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은퇴가 본격화 된 대전지역 여성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실효성 높은 일자리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본 좌담회에서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기조연설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논의함에 있어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좌담회에서, 만 45 ~ 58세의 여성은 경력단절여성과 퇴직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출산 등으로 사회 적응이 어려우므로 사회봉사 위주의 시간제 근로를 통해 적응하도록 하고, 퇴직여성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현황발표에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백은숙 간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또한, 룸어텐던트 양성과정 등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비교적 쉬운 직종 및 노동시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선정하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권부남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여성지배적인 직종에 훈련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며, 주 5일 근무를 선호하는 등 여성베이비붐세대 일자리 결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일자리 발굴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정섭 팀장은 기관의 지원 현황 발표에서

“직업 훈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경력 단절 기간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과 두려움으로 취업의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채용 업체에서 업무에 미숙하고 조직의 적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무경력자의 채용을 꺼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반찬전문가 등 생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백경희 직업상담사, 대전광역시일자리원본부(배재대학교) 김정현 본부장 등 기관 전문가들의 발표 후에는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최효철 대전대학교 교수, 김기희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토론이 개진되었다. j




## “지속가능성 시민위원회 시정발전 자문회의”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18일(목) 18시 30분 대림관광호텔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성 시민위원회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성 시민위원회 시정발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이창기 원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지속가능성시민위원들이 대전 각계각층에서 대전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덕분에 민선5기 3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전시에 더욱 애정을 갖고, 대전시의 현안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박순현 경제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최호택 자문위원은 “민선5기 3년을 돌아봤을 때 공약이행률이 전국 평균을 많이 웃돈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전시의 현안과제에 대해 대전시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으로 굼직굼직한 현안 사항에 대해 민·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시민위원회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임성만 명성분과 위원은 “요즘 대전시의 가장 큰 이슈는 과학벨트와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안사항으로인해 과학벨트의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설명,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는 각 건설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대전의 역사문화 현장탐방”

제9차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는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모르지나쳤던 대전의 지역 문화제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이러한 문화제를 둘러보고 대전 지역의 역사를 익히고 옛 선조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다양한 문화제를 접하고 평소에 간과했던 우리 고장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대전학을 연구하는 한남대학교 김태명 교수가 동행해 현장에서 문화제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동춘당과 남간정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문화제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제월당, 쌍청당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대전의 문화유산이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그동안 몇 번이나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길옆에 이렇게 뜻 깊은 문화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오늘 설명을 잘 기억해서 지인들에게 알려줘야겠다”며 이날의 소감을 말했다. 




## “도시안전디자인포럼 정례조찬모임”

도시안전디자인포럼은 24일(목) 오전 7시 30분 유성호텔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라는 주제로 정례조찬모임을 가졌다.

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강사로 참석하여 '4대 사회적 근절 관련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서 정 청장은 “하하하 운동이란 각종 범죄를 비롯한 사회 위협요소의 근본원인을 가정의 역할 부재 및 사회의 관심 부족에서 찾고, 가정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범시민적인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주 원인으로 가정폭력이라고 설명하며,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에 이어 강력범죄로 확산되고, 또다시 가정폭력으로 회귀하는 끝없는 악순환의 대물림이다. 이혼, 가출 등 기본적인 신뢰 학습 공간인 가정 해체 위협요소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 가정의 붕괴는 곧 사회 안전망 붕괴로 연결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가정의 역할 재정립 시급, 가정의 역할을 보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필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끌어

안을 수 있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 요구, 개인의 문제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2013년 제18회 여성주간 기념 대전형 여성친화도시 추진 비전과 전략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3년 제18회 여성주간 기념 대전형 여성친화도시 추진 비전과 전략 전문가 워크숍을 7월 2일(화) 10시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전 지역 내 관련기관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여성 활동가, 교수, 연구자,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용봉(대전광역시 여성시민통합특별보좌실)보좌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대전 여성의 신뢰를 확보하고 여성들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할 때 사회적 자본은 더 풍부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각각의 주제로 임원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 워크)사무국장, 임현정(대전제21추진협의회)기획팀장, 안명희(대전여민회)팀장, 김순영(대전여성장애인연대)사무국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센터장의 진행으로 안수영(충남여성정책개발원)연구위원, 이한태(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공기관법센터)연구위원, 장미현(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박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사례발표에서 임원정규 사무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동원적 성격을 지양하고, 지역 내 NGO, 다양한 여성그룹, 지역사회공동체 등과 함께 고민하고 통합적 마인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였다.

임현정 기획팀장은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와 거주 지역별 여성의 분포도 그리고 생애주기별 여성의 요구조사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며, 이를 행정과 정책방향, 나아가 사업으로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연구자가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이에 관하여 토론한 결과를 정책 연구 보고서에 반영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j](#)



## “ [2013년 여성주간기념] 여성 리더쉽 워크숍 개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3년 여성주간기념 여성 리더쉽 향상 워크숍”을 구)충남도청 중회의실과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사이언스홀에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과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7월 4일(목)에 실시하였다.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여성 리더쉽 워크숍은 이미원 위드원대표의 진행으로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팔로워십과 긍정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의 리더쉽을 주제로 각각 실시되었다.

오전에는 대전에 거주하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직에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팔로워십에 대한 강의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진정한 시너지는 리더쉽과 팔로워십이 멤버십으로 조화될 때 그 효력이 발휘됨을 강조하며 팔로워십을 갖추기 위한 자기관리 기술을 배움으로서 조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대덕특구에서 근무하는 여성기술과학인을 대상으로 신뢰조성을 위한 의사소통기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최근 리더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리더의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긍정적인

소통을 기본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긍정의 스트로크 방법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j](#)



## “ 2013년 제1~2차 경제 페스티벌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경제교육센터는 7월 30~31일 2일간 오류동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전시 초등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1~2차 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미래경제주체인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합,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실천형 경제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간접적으로 경제주체를 체험함으로써 경제적 사고능력 배양하고자 마련되었다.

페스티벌에서는 경제개념 배우기, 흥미로운 체험을 통한 경제 알기, 모의 사업 게임을 통한 경제 알기, 직업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기업이 정신에 대한 이해, 경제 기초 개념 이해(희소성, 만족지연,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용돈관리), 경제 기초 지식 이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j](#)



# 중부권메갈로폴리스 육성과 대전도시권의 발전전략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 흥 태

## 1 메갈로폴리스와 대도시권 정책의 동향

### 1. 메갈로폴리스 정책동향

#### 1) 글로벌 도시권 지향형 경제성장과 역량강화 모델

- 미국의 메가리전은 지역간 환경시스템 및 지형, 인프라, 경제구조, 정주패턴 및 토지이용, 문화 등을 공유하고, 메가리전의 조정과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연방차원의 정책 및 과제, 전략 등을 도출
-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영향에 중점을 둔 국토관리와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되, 그 범위는 국가 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경제체제 속에서 글로벌 도시권을 지향함

#### 2) 지역 간 자원공유를 위한 네트워크형 협력모델

- 유럽은 지역 간 이익에 기초한 win-win 전략이 필수적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공간통합의 목표를 결합, 다핵도시권 형성과 분업적 고용(노동)구조 형성, 독특한 문화 창출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함
- 특히 독일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대도시권역들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역을 설정하되, 각 권역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기능연계 및 총족 여부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대도시권은 혁신의 중심지로서 과학 및 연구개발 관련 시설의 밀도가 높고, 주요 광역행정 및 교통 서비스 결정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3) 중앙정부 주도의 거점개발 중심 성장지향 모델

- 중국은 3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개발 방식의 성장전략으로 비교적 명확한 자연적·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후방 연계관계에 있는 산업체들이 밀접한 교류연계 활동을 전개 중임
- 중국의 거대도시권은 명시적 통제와 경쟁 지향적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통합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협력적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개발총괄전략과 공동목표를 제시함

### 2. 대도시권 정책동향

#### 1) 초국경화에 대응한 핵심 경제지역 육성

- 글로벌 장수경쟁의 심화에 따라 세계적인 대도시권 육성 정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 육성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 광역경제권의 실질적 형성과 발전을 견인할 선도지역 육성

- 지방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선도산업 육성, 인력양성, 선도 인프라 등 선도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집행으로 도시 및 도시권 육성 등의 공간전략이 미약함

#### 3) 체감할 수 있는 공간범위 내에서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

- 지역주민·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최대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최우선시하는 내발적 발전 도모
- 도시권 단위의 다양한 도시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정주여건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인구 및 지역기업의 이탈방지

#### 4) 기능분담과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 종전의 개별 행정구역 단위에서 도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 기능 분담 및 연계체계 중시로 다양한 도시적 공공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의 최적화, 공급비용

## 2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및 대도시권 육성 필요성

### 1.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의 필요성

#### 1)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융복합 거대도시권 형성 (쇄신확산 플랫폼)

- 거대도시권(Megalopolis) 형성 : 광역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초광역권의 자족경제권 형성 : 광역경제권 간 통합 글로벌 신경제권역 형성
- 국토발전의 불균형 구조 극복 : 중부권 플랫폼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신 모델 구축

#### 2) 지역 간 특성화를 통한 상생발전과 연계협력을 위한 거대도시권 형성

- 지역 간 효율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기능연계 : 자율적 연계협력 도시권 확대
- 지식기반시대 네트워크 경제의 이점 극대화 : 창조와 혁신의 중심지 형성
-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과 사회문화적 통합 : 동반성장과 지역통합의 기반 구축

#### 3) 수도권 1극 집중 국토불균형 구조, 통일 한국을 대비한 새로운 국토 구조 형성

- 서울/수도권 중심, 경부축 중심의 국토공간 불균형 구조 형성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 경부축에 집중된 국가의 쇠퇴 역량을 중부권 플랫폼 형성을 통한 전국 확산 도모

### 2. 대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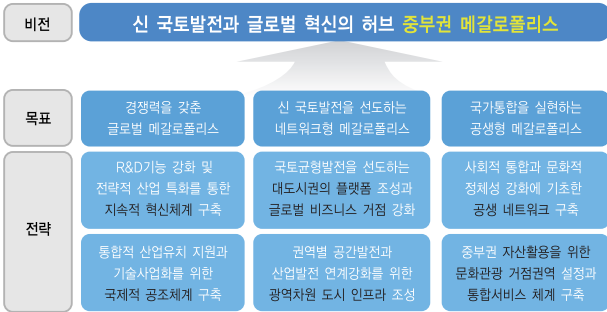
- 도시권 단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집적화에 의한 규모경제의 달성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 하고, 지자체 상호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중추도시권 육성의 실현을 위해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대도시의 경제 기반 강화와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대도시의 산업·경제기반 재생·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도시기능의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 중심도시를 '선택' 하고, 특성화로 '집중' 하며, 주변과 '네트워크' 형성
  - 권역내의 중심도시를 선택하여 고차 도시기능을 집중시켜 특화 개발을 지원하고, 주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권역의 공생발전 도모
  -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지역에 시설과 서비스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의 의료, 행정 등 고도의 생활서비스를 공급 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 3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전략

### 1. 기본방향

#### 1) 비전 및 목표

- 비전은『신 국토발전과 글로벌 혁신의 허브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표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메갈로폴리스', '신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네트워크형 메갈로폴리스', '국가통합을 실현하는 공생형 메갈로폴리스'로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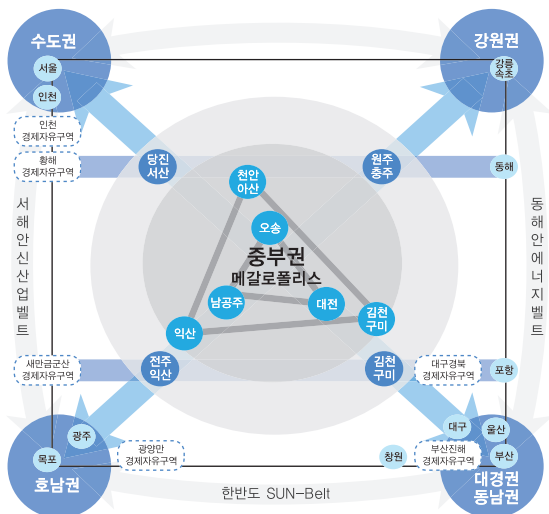
[그림 1]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비전 및 전략

### 2) 부문별 특성화 전략

- 도시환경의 특성화 전략은 수평적 다핵공간 구조를 통한 거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국가중추행정, 과학, 문화의 플랫폼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창출
- 산업경제의 특성화 전략은 R&D 기능강화를 통한 지속적 혁신체계 구축,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산업특화, 산업 간 연계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인프라 강화
- 사회문화의 특성화 전략은 중부권 문화/관광 거점권역 설정, 지역 자산 유형별 인벤토리 구축과 전담 관리기구 운영,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형 웰빙/생태/레저 타운 형성
- 광역교통의 특성화 전략은 중부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중부권 통합 교통운영체계 구축, 광역교통 네트워크 활성화

### 2.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형성 기본구상

- 수도권 1극 집중 국토불균형 구조, 통일한국을 대비한 새로운 국토 구조 형성 기반 구축
- 경부 축에 집중된 국가중추기능의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간의 연계로 전국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
- 과거 국가 주도의 발전 모델을 탈피하여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을 통한 지역주의의 극복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중부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대경·동남권을 연계시키고, 대전-세종-청주-천안을 핵심권역으로 설정하고 2차적으로 당진·서산-원주·충주-전주·익산-김천·구미권을 연계하여 추진



[그림 2]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형성 기본구상도

## 4 대전도시권 발전전략

### 1. 대전도시권 SWOT 분석과 발전과제

#### 1) 대전도시권 SWOT 분석

##### 가. 강점요인

- 국가중추기능(세종특별자치시)과 과학기술(첨단 R&D분야 기반 시설과 인적자원)의 전국적 영향력과 지배력 보유
- 동북아 및 국토의 교통·교류 중심지 역할과 지역 간 상생발전의 잠재력 보유
- 백제/기호유교 문화권의 중심지

##### 나. 약점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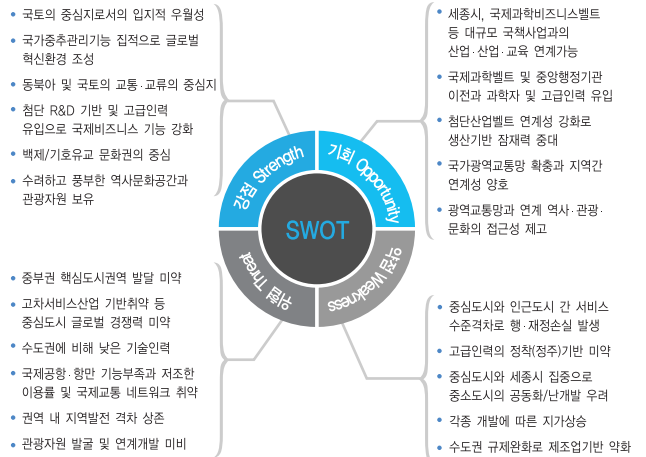
- 중부권 핵심 도시권역의 발달 미흡과 낮은 GRDP, 인구증가 정체현상 등
- R&D와 상업화 연계를 위한 산업지원 인프라 부족
- 국제공항 기능과 인프라 부족 및 저조한 이용률
- 도시권 내 지역발전 격차 상존

##### 다. 기회요인

- 국가중추행정기관의 이전과 다양한 고급인력의 유입 예상
- 국토균형발전 실현의 기회
- 첨단산업벨트 등의 초광역차원 사업추진의 잠재적 여건 풍부
- 광역교통망 확충(도로, 고속도로, 철도 등)

##### 라. 위협요인

- 지역 간 경제력격차의 심화와 고급인력의 정착(정주)기반 미약
- 중심도시와 세종시로의 생활형 역류현상으로 주변 중소도시의 공동화 우려
- 세종시 이전효과가 약화될 우려
- 수도권 규제완화로 제조업기반 약화



[그림 3] 대전도시권의 SWOT분석결과

### 2) 발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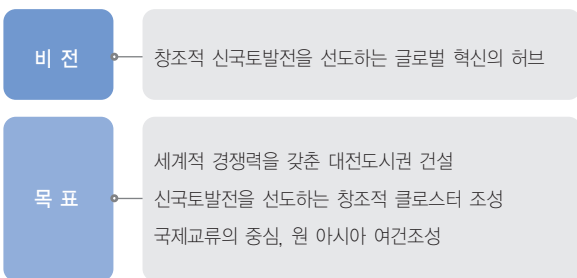
- 기존의 국가중추시설을 기반으로 한 중앙행정기능과 연계한 도시권 성장동력 확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도시권의 글로벌 기능강화를 위한 중심도시 국제비즈니스 환경조성
-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이 지속가능한 공생발전 체계 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존의 산업단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 국토의 중심부의 입지적 우월성과 대전 중심도시의 기능적 특성과 연계한 세종특별자치시, 오송신도시, 인근지역의 중심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필요

- 동북아의 중심, 더 나아가 원 아시아(One asia)를 선도하는 대전 도시권의 국제적 위상 재정립과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여 개방적 투자 유치에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2. 대전도시권 발전전략

1) 비전 및 목표

- 세계화시대의 경쟁력은 국가로부터 나온다기보다는 도시, 그것도 대도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전도시권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도시환경을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대전도시권내의 중심도시와 인근지역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도시권을 형성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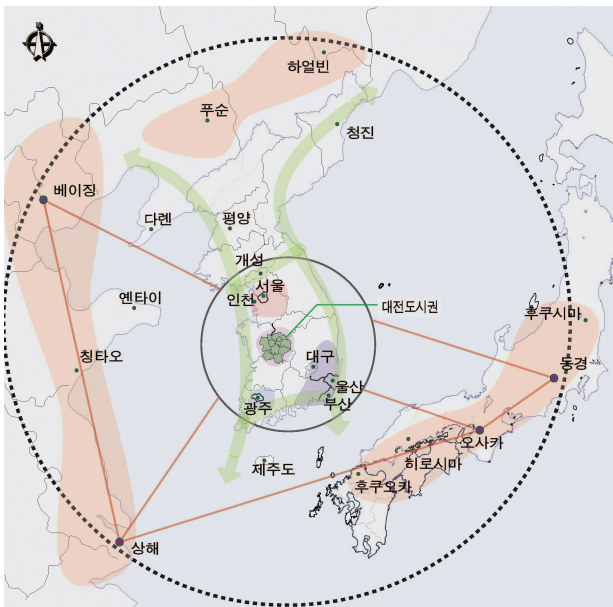


[그림 4] 대전도시권의 비전 및 목표

2) 대전도시권 발전전략

가. 대전도시권의 중심의 메타시티(metacity)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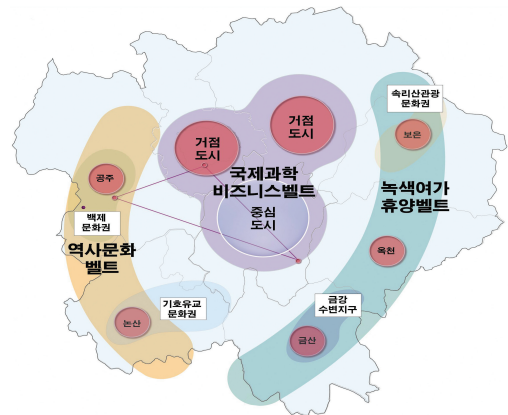
- 첨단 정보통신망과 국제 고속교통망을 통해 대도시의 활동영역이 국경을 초월하여 인근 국가의 도시와 연결되어 생활권, 비즈니스권이 발달하는 메타시티 대두
-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국 상해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주말 외식과 관광을 즐기는 삶이 일상화될 전망
- 국토 전체를 하나의 도시권, 1시간 생활권의 초스피드 국토형성



[그림 5] 대전도시권 중심의 메타시티 형성 구상도

나. 대전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전략

- 대전도시권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영·호남지역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지이면서 육상교통의 주요 결절지이며, 기능적으로 국가중추 행정기능과 국가과학기술의 혁신·발신기지로 중부권의 글로벌화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세종시 건설은 분권국가·분권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그동안의 권력집중과 인구집중의 악순환 고리를 극복하여 인구와 기능의 지방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대전도시권의 공간구조는 대전-세종-청주를 중심권역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과학기술, 국가중추기능 뿐 아니라 자연환경인 역사·호수·명산과 다양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연계한 녹색여가휴양벨트, 그리고 백제문화권과 기호유교 문화권을 잇는 역사문화벨트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



[그림 6] 대전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구상도

3) 대전도시권 다이내믹 비즈니스 트라이앵글지대 구축

- 국토공간상의 대전도시권은 내륙초광역개발권 및 충청광역경제권 산업발전축과 3개의 광역도시계획상의 개발축으로 주로 각각의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거대도시권 형성에는 기능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
- 대전도시권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인식하고, 도시의 역할 및 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와 연계 도모, 이를 위해서는 도시권내 권역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 강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국가교통기간망축과 KTX 건설에 따른 국토의 시공간을 단축은 대전도시권을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음
- 대전도시권의 3개 KTX역을 연결하는 교통회랑(Corridor)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을 추진하여, KTX 대전역, 오송역, 남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One Triangle을 구축하여 광역교류의 역세권비즈니스지구 개발



[그림 7] 대전도시권 One Triangle 역세권 비즈니스지구

##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소비가 다소 확대되고 고용상황이 개선된 모습이고 생산이 부진하지 않지만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가 감소하고 금융부문도 다소 위축된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이 다소 위축되고 수입이 부진하지만, 소비가 호조세이고 고용상황도 매우 양호한 편이며 물가상승률도 0.8% 수준으로 지난달 0.7%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매우 안정된 모습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2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등한 이후 4월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부터 10월까지 후퇴와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 11월 이후 소폭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

5개월째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 정책효과 본격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었으나,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유럽경제 회복지연 등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외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경기종합지수

- 2012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등한 이후, 4월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부터 12월까지 후퇴와 회복을 반복하였고, 2013년 1월부터 5개월째 하강하여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임.

### 생 산

- 2013년 5월, 전월대비 생산과 재고가 감소하고 출하는 증가하여 부진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여 다소 부진한 모습. 향후 소비는 IT부문 신모델 초기 출시효과 축소로 전월 대비 다소 부진하겠으나, 자동차 업계의 주말특근 재개로 생산이 개선되고 일평균 수출이 회복되면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소 비

- 2013년 6월, 소비는 전월대비 가스와 연탄소비량, 전력사용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대형마트의 판매 감소와 노은시장의 농수산물판매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증가하였음. 전반적으로 전월대비로는 전월의 부진에서 회복세로 반등하는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최근 3개월째 호조세에서 회복세로 반등하는 모습임

### 고 용

- 2013년 5월, 고용상황은 전월대비 취업자는 3개월째 증가하고, 실업자는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은 3개월째 하락하여 지난달에 이어 개선된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도 취업자는 서비스업과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여 11개월째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와 실업률도 3개월째 감소·하락하여 고용상황은 매우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 물 가

- 2013년 6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축산물의 대폭 상승과 내구재, 섬유제품, 집세 등이 상승하였으나, 농산물의 대폭 감소와 석유류, 개인서비스 품목이 하락하여 전월보다 0.1% 하락함. 물가상승률은 0.8% 수준으로 지난달의 0.7% 수준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물가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금 용

- 2013년 6월,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매도세와 달러 강세 등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였음

### 대 외 거 래

- 2013년 5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로 반전.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섬유류, 생활용품, 농림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잡제품,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농림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수출은 최근 부진한 모습에서 다소 호전된 모습이나, 수입은 최근 5개월째 호조세에서 부진한 모습으로 반전한 모습임. 무역수지는 2월부터 흑자를 유지한 이후, 5월은 전월보다 흑자폭이 확대됨

